

6) 서당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적 자각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사립학교를 탄압하였으므로 민족적 항쟁의 구체적 표현으로 오히려 서당이 증가하고, 일본에 대한 반발로 이곳을 찾는 학생이 많아졌다. 전국 통계에 따르면, 1911년 서당 1만 6,540개에 학생 14만 1,604명이었던 것이 1916년에는 서당 2만 5,486개에 학생 25만 9,513명으로 불어나 5년 만에 약 18배로 증가하였다.

『천남사정지』에 따르면, 순천지역에 설치된 서당은 80개 소였으며 직원은 80명이었고, 학생 수는 남자 90명, 여자 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